

고하 송진우 선생 탄신 125주년 및 서거 70주기 추모식 추모사

오늘은 조국독립과 정부수립을 위해 신명을 바치신 고하 송진우 선생님의 탄신 125주년을 기념하고 서거하신지 70년을 추모하는 뜻 깊은 날입니다. 먼저 선생님의 탄신을 축하하면서 뜻하지 않게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의 영전에 온 국민과 함께 명복을 빕니다. 저희 곁을 떠나신지 어느덧 70년의 긴 세월이 흘렀으나 선생님의 숭고한 정신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민족의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삶 그 자체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신 위대한 선각자요 지도자였습니다.

일찍이 호남 의병장이었던 기삼연 선생의 문하생이었으며, 동경에서 신학문을 배우며 민족의식을 불태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민족자결이라는 새로운 국제흐름에서 한국인의 독립의지와 일제침략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국내 3·1운동에 적극 가담하셨습니다.

1920년 이후 선생님의 독립운동은 고난과 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1921년 동아일보사 사장에 취임하여 <물산장려운동>과 <민립대학설립운동> 등 전개, 1925년에 호놀룰루 범태평양회의에 국내 대표로 참석, 1926년, 3.1운동 7주년 기념사 게재로 무기정간 처분을 받고, 징역 6월형을 받았습니다. 동아일보가 수차례 정간당하는 수난에서 문맹퇴치를 위한 <브나로드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1936년에 손기정 선수의 가슴에 달린 일장기를 지운 사진을 게재하여 무기정간을 당하고 사장직을 그만두는 수난을 겪었습니다.

광복 직후에 격렬한 이념대립과 혼란 속에서 한국민주당 초대 수석총무, 동아일보 사장에 취임하여 정치인, 언론인으로 많은 활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생은 광복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염원했던 독립된 국가수립을 보지 못하신 채 신탁통치 대응에 대한 이견으로 안타깝게 흉한의 저격으로 운명하셨습니다.

민족의 화신 고하 송진우 선생이시어! 금년은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이 되는 매우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선생님께서 광복의 환희와 함께 비극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민족도 분단과 함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냉전의 이념대결로 남북한이 분단되어 극심한 혼란과 6.25전쟁의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였으나, 우리 국민들은 분단과 북한의 군사적 대결상황에서도 마음을 하나로 모아 70년 만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라는 경이적인 국가발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상황을 볼 때 국가의 장래가 녹록치 않습니다. 세계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고, 내부적으로 이념과 가치관의 차이로 갈등과 분열의 진통을 겪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과 군사적, 이념적 대결이 날로 격화되고 있으며, 일본, 중국 등 주변국가 간의 영토와 역사분쟁으로 요동치는 동북아의 정세는 우리 국가의 존립과 미래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광복 70년을 맞이하는 금년은 분단 70년의 갈등과 분열을 넘어, 통일국가와 번영을 향한 국가대업의 밑거름을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고하 송진우 선생님의 탄신일과 서거 추모식을 계기로 선생님의 숭고한 정신이 널리 선양되어 선생님께서 못다 이룬 꿈과 국가대업의 성취를 위한 국민의 의지와 실천운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온 국민이 흠모하고 있는 민족의 등불, 고하 선생이시어!

천상에서 편히 영면하소서.

2015. 5. 8.

서울지방보훈청장 안중현